



조선후기 전주류씨 함벽당^{涵碧堂}의 관계망과 그 특징

김명자*

1. 머리말
2. 가계 및 혼인을 통한 관계망의 형성
3. 거주 공간의 이동과 함벽당 관계망의 변화
4. 맺음말

요약

관계망은 특정 개인과 집단의 사회적 성격의 일면을 보여준다. 이 글은 조선 후기 안동 전주류씨 함벽당의 관계망을 살펴본 것이다. 조선 후기 영남에서 '퇴계학'과 '문충'은 중요한 정치적·사회적 함의를 담고 있다. 퇴계학파는 여러 갈래로 분파되었지만, 결국 안동의 서부권을 중심 무대로 하는 서애계(류성룡계)와 동부권을 중심 무대로 하는 학봉계(김성일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전주류씨는 학봉계를 주도하는 성씨였다.

안동의 전주류씨는 천전 마을의 의성김씨와 혼인하여 처가의 경제적 기반이 있는 안동부 동쪽의 임하현 수곡마을에 정착하였다. 이후 전주류씨는 그 주변으로

* 金命子, 경북대학교 시간강사

거주지를 확대하였다. 17세기 전반 류학은 처가와 가까운 안동부의 서쪽으로 이주하게 되었다. ‘함벽당’으로 불리는 그 후손들은 안동부의 서부권과 인근 고을인 순흥부, 예천군, 봉화읍의 사족들과 새로운 훈인 및 학문 관계망을 형성하였다. 함벽당은 서어계의 세거지와 가까운 곳에 거주했기 때문에 서어계 인사들과 교류하는 비중이 높았지만, 여전히 학봉계에 속하였다. 19세기 서어계와 학봉계의 분열과 대립이 격화되었을 때 함벽당이 이를 조정·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었던 이유이다.

주제어

: 관계망, 류경시, 류학, 서어계, 전주류씨 함벽당, 학봉계

1. 머리말

인간은 관계망 속에 존재한다. 관계망은 정보와 여러 활동에 필요한 인적·물적 재원을 획득하는 사회적 자본이자, 생활과 생존에 필요한 정서적 자본이기도 하다. 관계망의 내용과 형식은 공간과 시간에 따라 양상을 달리하지만 관계망을 통해 개인 및 집단의 다양한 성격을 추적할 수 있다. 개인 혹은 집단을 둘러싼 관계망 연구가 필요한 이유이다.

2000년대 이후 조선시대 연구에서도 관계망을 주제로 한 연구성과가 나왔다. 관계망의 형성 배경, 사환을 통한 관계망 형성, 세대로 이어지는 관계망, 교유 장소별 관계망의 대상과 성격 등이 밝혀졌다. 향촌 사족의 관계망은 중앙정치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¹

1 고영진, 『양반관료 류희춘의 관계망』, 『사회적 네트워크와 공간』(태학사, 2009); 김선경, 『16세기 성주 지역 사족의 교유 공간과 감성』, 『역사연구』 24(역사학연구소, 2013); 전경목, 『『미암일기』를 통해 본 16세기 양반관료의 사회관계망 연구 — 해배 직후 시기를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73(조선시대사학회, 2015); 김명자 『순조 재위기(1800~1834) 하회 풍산류씨의 현실 대응과 관계망의 변화』 『국학연구』 29(한국국학진흥원, 2016):

이들 연구는 사회사·생활사 연구의 영역 확장에 기여하였다. 관계망 연구 방식의 구조화 및 연구 방법론은 여전히 과제로 남는다.

이 글에서는 안동 전주류씨 함벽당(涵碧堂)의 관계망을 살펴보고자 한다. 개인이 아닌 가계 혹은 문중의 관계망을 살펴보려는 것은 18세기 이후 향촌 사회의 재편과 맥락을 같이 한다. 18세기 이후 영남의 향촌 사회는 동성마을을 배경으로 한 문중 중심으로 재편되었으며, 개인의 위상은 문중의 위상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²

조선 후기 안동을 비롯한 영남 사족 사회는 퇴계학파가 주도했는데, 퇴계학파는 크게 서애계(서애 류성룡 계열)와 학봉계(학봉 김성일 계열)로 나누어졌다. 안동 전주류씨의 경우 퇴계학파 내에서 의성김씨와 더불어 학봉계를 대표하는 성씨로 언급된다. 전주류씨 관계망의 양상과 추이는 향촌 사회의 일면과 특징을 파악하기에 충분하다. 전주류씨의 대표적 거주 공간은 안동부의 동쪽에 위치한 임하현 수곡(水谷·무실)·박곡(朴谷·박실) 등이다. 함벽당의 경우, 11세 야계(冶溪 류학(柳學)(1607~1688)이 안동부의 서쪽인 가야곡촌(佳野谷村)으로 이주한 이후 수곡·박곡 등의 전주류씨와는 관계망의 양상을 달리하는 측면이 있다. 거주 공간의 변화가 관계망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시계열적 흐름 속에서 살펴볼 것이며, 그 의미도 함께 부여하겠다.

이를 위해 전주류씨 함벽당에 전해오는 간찰을 비롯하여 『전주류씨족보 全州柳氏族譜』(1911), 필사본의 『동문계안(同門稷案)』·『선현유찰(先賢遺札)』·『창설유고(蒼雪遺稿)』 등을 활용할 것이다.³

김명자, 『『曆中日記』를 통해 본 18세기 대구 사족 최홍원의 관계망』 『국학연구』 38(한국국학진흥원, 2019) 등.

2 김명자, 『조선후기 안동 하회의 풍산류씨 문중 연구』(경북대 박사논문, 2009).

2. 가계 및 혼인을 통한 관계망의 형성

1) 가계와 거주지

전주류씨의 시조는 류습(柳濕)이다. 류습의 다섯 아들이 모두 과거에 급제함에 따라 전주류씨는 본관인 전주를 떠나 한양으로 상경하여 묵사동(墨寺洞)에 거주하였다. 류습의 7세 류운선(柳潤善)은 영천(榮川)(영주) 군수를 역임하는 형 류운덕(柳潤德)을 따라 영주와 인연을 맺게 되었다. 류운선은 양천허씨와 혼인했으나 부인이 사망하자, 영주에 거주하는 나주박씨 박승장(朴承張)의 딸과 재혼하였다. 이후 처가인 영주로 거주지를 옮겼다.⁴

류운선의 아들은 류성(柳城)(1533~1560)과 류단(柳壇)이다. 류성은 영주에서 안동부 임하현 수곡(水谷)(무실)으로 이주하여 수곡파(水谷派)의 입향조가 되었다. 안동부 임하현 천전(川前)(내앞)에 터전을 마련하고 있던 의성김씨 김진(金鎭)의 딸과 혼인하였기 때문이다. 김진은 임하 일대에 강력한 경제적 기반을 구축하고 있었으며, 그 일부인 수곡의 토지를 사위에게 분급하여 세가의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류성이 28세에 사망하자, 외조부 김진이 류성의 아들 복기(復岐)와 복립(復立) 형제를 양육하였다. 이들은 김진의 아들이자 퇴계 이황의 뛰어난 제자 가운데 한 명인 학봉(鶴峯) 김성일(金誠一)(1538~1593)에게 수학하였다. 전주류씨는 혼인과 학문으로 의성김씨 및 학봉계와 연계되었으며, 이는 향후 지역 사회에서 위상을 유지·강화하는 데 커다란 자산이 되었다.⁵

3 함벽당에서는 2003년부터 2016년까지 고서와 고문서 등 377종 2,014점을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하였다. 간찰은 833건으로, 이 가운데 120건은 2020년에 『안동 전주류씨 함벽당중가 간찰』로 탈초·번역되었다.

4 『全州柳氏族譜』(1911년).

5 위와 같음; 정진영, 「전주류씨와 무실마을, 그리고 수류 사람들」, 『안동무실마을』(안

류복기는 김해金垓·배용길裴龍吉 등과 함께 임진왜란 당시 의병에 참여했고, 관직으로는 예빈시정에 제수되었으며, 이조 참판에 증직되었다. 그는 기양서당岐陽書堂을 설립하여 자제들의 강학 장소로 활용하였다. 류복기는 향촌 사족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했으며, 후손들이 학문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닦았다. 류복기는 우잠友潛·득잠得潛·지잠智潛·수잠守潛·의잠宜潛·희잠希潛·시잠時潛의 7형제를 두었는데, 이는 후손들이 확대되고 거주지도 인근 지역으로 확대되는 발판이 되었다.



〔그림 1〕
『영가지』永嘉誌〕
『임하현도』臨河縣圖〕

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 2008), 27쪽. 이하 가계 관련 내용은 족보를 참고하였으며, 따로 주석을 달지 않았다.

수곡과 더불어 전주류씨의 거주지로 유명한 곳은 박곡이다. 이곳은 류우잠의 5세 관현觀鉉(1692~1764)이 분가하여 살면서 전주류씨의 거주지가 되었다. 류지잠의 후손 류건휴柳健休(1768~1834) 역시 박곡에 이주하여 세거하였다. 원파遠坡(원두들)는 수잠의 후손들이 거주지로 개척한 곳이다. 임하현과 가까운 예안현 주진舟津의 삼산三山마을은 류우잠의 5세 류석구柳錫龜가 개척했으며, 그의 아들 류정원의 후손이 삼산중가를 중심으로 가계를 계승하였다. 이처럼 전주류씨의 거주지는 수곡에서 시작하여 박곡-원파-삼산 등지로 확대되었다. 대체로 안동부의 동쪽에서 예안에 걸쳐 있다.

한편 류우잠은 숙櫛·직稷·옥櫛·학櫛·격格的 5형제를 두었다. 위에서 언급한 수곡-박곡-삼산으로 거주지를 확대한 것은 대체로 류숙의 후손이다. 17세기에 이르면 전주류씨도 향촌에서 위상이 더욱 높아졌다. 류우잠의 둘째 아들 류직(1602~1662)은 1650년(효종 1) 문묘 종사 추진 당시 소수疏首로 추대되었다. 그는 문과 급제하였고, 내외직을 두루 거쳤으며, 가문의 흥기에도 기여하였다. 류우잠의 다섯째 아들 학은 처가의 경제적 기반이 있던 안동부 서쪽의 가야곡촌으로 이주하였으며, 후손들은 그곳에서 세거하였다. 안동부의 동쪽을 기반으로 한 전주류씨의 세거지가 안동부의 서쪽으로 확대된 계기가 되었다.⁶

2) 혼인을 통한 관계망의 형성

16세기 이후 향촌을 주도하던 사족은 자신들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하여 혼인을 중요시하였다. 붕당정치기에는 혼인할 때 학파와 당색도 고려하였다. 영남 지역에서는 퇴계학파에 속하는 가문끼리 혼인하는 경우

6 『全州柳氏族譜』(1911년).

가 많았다. 당색이 변하면 혼인 대상 가문이 바뀌기도 하였다. 혼인 성씨를 통해 정치적·학문적 성향, 사회적 위상, 경제적 위상까지 짐작할 수 있다.

전주류씨 8세 류성이 임하현에 정착한 이후 11세까지 혼인한 성씨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⁷

<표 1> 전주류씨 수곡파 8세~11세의 혼인 성씨

항렬	성명	배위/사위 본관	외조	비고
8세	柳 城	의성 김	여흥 민	
9세	柳 復 岐	영덕 정	무안 박	
	柳 復 立 ㉔			
10세 (복기 자녀)	柳 友 潛	우계 이	인동 장	
	柳 得 潛	진성 이		
	柳 智 潛	연안 이	순흥 안	집안에서 향약을 행함
	柳 守 潛	순흥 안		
	柳 宜 潛	단양 우	경주 안	
	柳 希 潛	안동 김	감천 전	조부 현감
	鄭 榮 邦	영일 정		정경세 문인
	李 明 遠	전의 이		
	金 遠	의성 김		부 주부
	柳 時 潛	미상		
11세 (우잠 자녀)	柳 櫛	한양 조	전주 최	부 직장, 외조부 좌랑
	柳 櫻	안동 권	동래 정	
	柳 櫛	의성 김	안동 권	
	柳 櫻	안동 권 안동 권	평산 신 나주 박	외조부 호군
	柳 格	광산 김	안동 권	증조부 김언기, 외조부 첨정
	金 壘	안동 김		

7 11세 시잠의 경우 사위만 6명 있고, 본관이 표기되어 있지 않아 생략하였다.

항렬	성명	배위/사위 본관	외조	비고
11세 (득잠 자녀)	柳 木 栽	단양 우		
	柳 棟	영천 이	의령 남	외조부 의령 남(침정)
	南 憲	영양 남		
	權 用 中	안동 권		부 세마
	金 尙 瓌	안동 김		
李 元 甲	미상			
11세 (지잠 자녀)	柳 櫛	안동 권	의령 옥	부 혼도, 외조부 감역
	柳 櫛	광산 김		
	金 希 振	안동 김		
	李 燾	우계 이		
	權 賚	안동 권		
11세 (수잠 자녀)	柳 木 參	고성이	진성이	조부 참봉
	金 鑾	선성 김		
	金 光 逸	광산 김		
	裊 興 度	홍해 배		
11세 (의잠 자녀)	柳 木 强	순천 김	광산 김	외조부 김언기
	柳 樟	영해 신		
	柳 樑	영천 이		
	柳 枋	의성 김	영양 남	
	宋 天 相	미상		
11세 (희잠 자녀)	柳 樟	한양 조	완산 최	외조부 좌랑
	柳 檣	영양 남	안동 권	부 현령, 외조 참봉
	裊 興 祚	홍해 배		
	李 賁 徵	미상		
權 泰 中	안동 권			

전주류씨의 혼반 형성에는 안동지역의 대표적인 가문 가운데 하나인 천전의 의성김씨와의 혼인이 커다란 배경이 되었다. 이후 전주류씨는 안동의 토성인 안동권씨와 안동김씨를 비롯하여 안동 와룡의 광산김씨, 봉화의 우계이씨, 영양의 한양조씨 등과 혼인하였다. 이들 성씨는 17~18세기 지역의 명문이었다.⁸

전주류씨는 중첩 혼인을 통해 특정 집안과의 결합을 강화하기도 하였다.

류지잠의 사위 권퇴權賚는 안동권씨로, 권벌權穰(1478~1548)의 후손이다. 권벌은 경상도 관찰사-형조 참판-한성부 판윤 등을 역임하였다. 이들은 안동부 속현 유곡酉谷에 세거했으며, 안동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일찍 발호한 가문이다. 권퇴의 아버지는 권승경權承慶이고, 아들은 권성구權聖矩이다. 권성구는 문과에 급제하여 병조 좌랑-강진 현감 등을 역임하였다. 권성구는 류직柳稷의 문인이기도 하다. 류학은 권승경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전주류씨는 권퇴의 아들 및 딸과 중첩 혼인을 하였다.

류격은 광산김씨와 혼인하였는데, 증조부는 안동부의 동쪽 가구촌佳丘村⁹ 출신의 유일재惟一齋 김언기金彦璣(1520~1588)이다. 류은은 김득연金得研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는데, 김언기의 손녀이다. 김언기는 퇴계 이황의 고제로, 문하에 남치리南致利·정사성鄭士誠·권위權曄·박의장朴毅長·신지제申之梯·권태일權泰一 등 훌륭한 인물들이 배출되어 당시 안동 학문 진흥의 창도자로 알려졌다.¹⁰

류우잠의 아들 류숙柳榘과 류희잠의 아들 류위柳緯는 영양 주실에 정착한 조전趙詮의 둘째 및 넷째 딸과 각각 혼인하였다. 조전의 아들은 조정형이고, 증손자는 조덕린이다. 조전은 첫째 딸을 영해의 재령이씨와 혼인시켰다. 한양조씨는 전주류씨가 이현일을 비롯한 퇴계학파의 중심적 인물과 교류하는데 가교역할을 한 셈이다.

전주류씨 수곡파는 혼인 관계망과 학문 관계망을 잘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사회적·학문적 기반이 확대되었다. 18~19세기에 이르면

8 정진영, 『조선후기향촌사』(한길사, 1998), 71쪽.

9 『국역 영가지』(안동문화원, 2001), 50쪽.

10 설석규, 『惟一齋 金彦璣의 學風과 學脈』, 『韓國의 哲學』 30(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01).

류범휴柳範休(1744~1823)·류장원柳長源(1724~1796)·류치명柳致明(1777~1861)을 비롯한 역량 있는 학자들을 많이 배출하였다. 19세기 퇴계학과를 주도하거나 안동을 위시한 영남의 대표적인 갈등으로 언급되는 병호시비屏虎是非에서 의성김씨와 더불어 학봉계를 이끌어가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다.¹¹

3. 거주 공간의 이동과 함벽당 관계망의 변화

1) 가야곡촌佳野谷村 정착과 혼인 관계망의 변화

11세 야계 류학이 17세기 전반에 안동부 서쪽에 위치하는 가야곡촌佳野谷村으로 이거하면서 전주류씨의 새로운 거주지가 형성되었다.¹² 류학은 야계공파冶溪公派 파조인 동시에 가야곡촌 입향조가 되는 셈이다. 이곳은 류학 처가의 경제적 기반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 류학은 권제가權際可의 딸과 혼인하였는데 부인이 사망하자, 권승경의 딸과 재혼하였다.¹³ 권승경은 안동부 내성현 유곡촌에 강력한 재지적 기반을 가지고 있던 권벌의 5세손이다.

11 권오영, 『조선후기 유림의 사상과 활동』(돌베개, 2003), 304~312쪽. 안동의 전주류씨는 한말까지 100여 명에 가까운 학자를 배출했고, 많은 저술을 남겼다. 정려 3명, 순절 2명, 불천위 5명, 천사 5명, 문과 10명, 무과 3명, 음사 39명, 증직 21명, 생원 19명, 진사 14명 등이 배출되어 가문의 위상을 짐작할 수 있다(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 『안동무실마을』, 2008).

12 '가야곡촌' 명칭은 『영가지』에 의거하였다. 여러 차례의 행정구역 및 명칭의 변화가 있었으며, 현재는 안동시 서후면 광평 2리에 속한다.

13 무덤은 경제적 기반과 관련이 있는데, 초취 부인의 무덤은 林塘 羅谷에 있고, 재취부인과 류학의 무덤은 천등산 태장에 있다(『全州柳氏族譜』(1911년)).

권벌의 아들 권동보權東輔(1517~1591) 남매의 화회문기에 의하면, 소유 토지는 안동부, 내성현, 개단부곡皆丹部曲, 봉화현奉化縣, 소천부곡小川部曲, 춘양현春陽縣, 풍산현豐山縣에 걸쳐 있다.¹⁴ 이 가운데 봉화현을 제외하고는 안동부의 속현이다. 권벌 집안의 토지는 안동부의 서북쪽과 봉화현에 걸쳐 있다. 권벌의 후손 가운데 일부는 유곡 주변으로 거주지를 옮겼지만, 경제적 기반을 계승하기도 하였다. 류학 역시 안동부의 서쪽으로 이주함에 따라 처가의 경제적 기반을 물려받을 수 있었다.



[그림 2] 함벽당 및 안동 서부권 주변 지역
— 『대동여지도』(규장각 소장)

14 李樹健 編, 『慶北地方古文書集成』(영남대학교 출판부, 1984), 298~305쪽.

가야곡촌에 거주하는 전주류씨의 중심 공간은 함벽당涵碧堂이다. 함벽당은 당호로, 깨끗한 연못에 정자 주변의 자연경관을 담고 있다는 뜻이다. 『함벽당기』와 『함벽당중수기』에 의하면, 함벽당 건물은 강희철康希哲이 세웠고, 강희철의 외손 권위權暉(1552~1630)가 이것을 물려받았으며, 류경시가 순천 부사를 역임한 이후 고향으로 돌아와 권위에게 구입했다고 한다. 강희철이 건물을 세울 당시에는 함경당涵鏡堂이라고 하였다. 1608년 편찬된 『영가지永嘉誌』의 권1 「각리各里」조 ‘가야곡촌’ 편에서 그 내력을 확인할 수 있다.

부의 서쪽 25리 옥산玉山의 남쪽에 있다. 마을이 그윽하고 깊으며 산골짜기 흐르는 물이 맑다. 절충折衝 강희철이 터잡아 살면서 연못 정자를 세웠다. 부사 권응정이 방문하여 술잔을 잡고 옛날을 얘기하고 인하여 편액에 이름짓기를 청하니 암庵은 ‘서은棲隱’이라 하고 당堂은 ‘함경’이라 하였다. 퇴도 선생이 와서 구경하시고 남긴 시가 누정조에 보인다.¹⁵

권응정은 1561~1564년에 안동 부사를 역임하였는데, 그때 강희철을 방문하여 ‘함경’이라는 당호를 지어 주었다. 경관이 뛰어나 인근의 여러 인사들이 방문을 즐겼다. 함경당을 방문한 이후 시를 남긴 인물 가운데 몇 편의 시가 『영가지』에 수록되어 있다. 권응정을 비롯하여 권응정의 서제庶弟 권응인權應仁, 예안의 퇴계 이황, 용궁 현감을 역임한 주촌周村 출신의 김팔원金八元(1524~1589), 부의 서쪽 송파촌松坡村에 거주했던 송암松巖 권호문權好文(1532~1587) 등이 있다. 이러한 시에는 함경당 주인 및 경관이 언급되기도 하였다. 이황의 시도 마찬가지이다.

15 『국역 영가지』(안동문화원, 2001), 58쪽.

맑고 밝은 시절에
 꽃핀 마을 보고파
 장군의 빼어나게 경치 좋은 뜰
 구경하였네

달뜨는 정자에는 환히 밝은데
 대나무는 물에 임하고
 구름 위 높은 집 아득히
 세상의 시끄러움 멀어졌다

창 사이 그림이 움직이니
 물고기 연못에서 놀고
 앉은 자리 봄이 무르익으니
 푸른 잔에 가득하구나¹⁶
 [이하 생략]

이항의 위의 시를 보면 함벽당은 한적한 곳에 위치하였다. 주변에 맑은 시내가 흐르며 집 앞에는 잘 가꾼 연못이 있다. 이항의 또 다른 시에는 ‘어느 해에 다시 이름난 정원의 손님 되어’라는 표현이 있다. 이것으로 미루어 함벽당은 연못의 경관이 뛰어나며 맑고 그윽한 경치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함벽당 후손은 안동부 임하현의 전주류씨와는 관계망에 여러 가지 변화를 보인다. 우선은 혼인 관계망의 변화이다. 임하의 전주류씨 혼인망을 그대로 계승하는 가운데, 안동의 서부지역과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성씨들과 새로운 혼인 관계망을 형성하였다. 류학은 1남 5녀를 두었는데, 아들은 류동휘(柳東輝)(1623~1683)로 한양조씨 조정형(趙廷珩)(1597~1650)

16 위의 책, 217~218쪽.

의 딸과 혼인하였다. 영양 출신의 조정형은 진사를 역임했고, 조부는 직장을 역임하였다. 옥천玉川 조덕린趙德鄰(1658~1737)은 류동휘의 고모부이다. 전주류씨 수곡파의 혼인 경향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사위로는 풍산현 상리上里(우릉골)의 선성이씨 이유장李惟樞(1625~1701)을 비롯하여 영해신씨, 봉화금씨, 고성이씨 등이다. 풍산현의 이유장을 사위로 맞이한 것은 전주류씨의 혼인 관계망의 변화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안동부의 서부권이자 학봉계와 대적점에 있는 서에게 및 서에게와 가까운 가계와 본격적으로 혼인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류동휘의 아들로는 정시正時·경시敬時·계시啓時·춘시春時·종시從時가 있다. 이 가운데 류경시(1662~1737)는 순흥부 출신의 참봉 단구丹丘 황창술黃昌述(1628~1711)의 딸과 혼인하였다.¹⁷ 황창술의 아버지는 상의원 별제를 역임한 황천일黃千一이다. 당대 ‘소단대원수驍壇大元帥’라는 별칭을 얻은 황창술은 애죽헌愛竹軒이라는 정자를 건립하여 후학 양성에 매진하였다.¹⁸ 이로 미루어 황창술 당대에는 가야곡촌과 인접한 봉화 일대로 생활 혹은 경제적 기반을 확대했음을 알 수 있다.

류경시는 장인 황창술과 일상적으로 교류하였다. 황창술은 필요한 물건이 있을 경우에는 류경시에게 도움을 청하였다.

송자주松子酒를 빚어서 지치고 쇠약해진 어른께 드리고 싶은데, 반드시 네댓 말을 구한 뒤에라야 가능할 것일세. 자네가 구할 수 없다면, 안동부사에게 간청해서 구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나머지는 만나서 다 말하기로 하고 삼가 살펴주기 바라며 편지를 보내네.¹⁹

17 『任仕案』(吳世昌 外, 『嶺南鄉約資料集成』(嶺南大學校 出版部, 1986)). 1685년부터 1727년까지 순흥향교 原任案에 황창술이 등재되어 있다.

18 『丹丘逸稿』附錄「行狀」·「墓誌銘」.

지난번에 찾으신 돼지 염통은 이번 봄철 향사享祀에는 입재入齋할 수 없어서 2개를 빌려서 보내주신 인편을 통해 부치려고 하였으나 결국 썩어서 버렸고, 석창포石菖蒲는 면에서 거둬 구했지만 얻은 것이 이것뿐이라 이제 비로소 보내 드립니다. 지난번에 꿩을 보내주신 것은 감사함과 기쁨을 어떻게 □…□. 이제 막 이리저리 구하고 있으니 조만간에 […후략].²⁰

위의 편지 가운데 첫 번째 것은 황창술이 류경시에게 송자주 빛을 곡식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다. 두 번째 편지는 류경시가 황창술에게 보낸 것이다. 황창술이 류경시에게 향사에 쓸 돼지 염통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자, 류경시가 그것을 구하였지만 제때 보내지 못하여 썩어 버렸다는 사실과 황창술이 부탁한 석창포를 마련하여 보낸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황창술은 사위 류경시에게 필요한 물건을 스스럼없이 부탁하였다. 사위 류경시와 장인 황창술의 경제적 관계가 긴밀하였다. 혼인 관계망을 통해 선물 경제를 비롯한 경제생활을 공유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류경시의 아들 녹균현綠筠軒 류진현柳晉鉉(1687~1767)은 1726년 소과에 합격하였다. 부인은 의성현 사촌沙村의 안동김씨 김이단金履端의 딸이자 문과 출신으로 부사를 역임한 송리松里 김성좌金聖佐의 손녀이다. 사촌은 류성룡의 외가가 있는 곳으로, 하회의 풍산류씨와 교류가 있었다.²¹

류경시의 사위는 남두정南斗精이고, 남두정의 아버지는 남천한南天漢(1607~1686)이다. 조부는 남용달南隆達(1565~1652)로, 용궁현에서 인접한 풍산현으로 거주지를 옮겼다. 이후 영양남씨는 풍산현 및 인근의 사족들과

19 정해년(1707) 11월 23일, 『丹丘에서 류경시에게 보내는 편지』(전주류씨 함벽당중가 간찰 0361).

20 갑오년(1714) 2월 25일, 『柳敬時가 黃院長에게 보내는 편지』(전주류씨 함벽당중가 간찰 0485).

21 『豊山柳氏世譜』(1985).

교유를 넓혀 나갔다. 남천한은 1630년(인조 8) 소과에 합격하고, 1646년(인조 24) 문과에 급제했으며, 대사간-호조 참의 등을 역임하였다. 예론에 밝아 예송 논쟁에 깊이 참여하여 남인의 입장을 대변하였다. 그는 숙종의 신임을 받았고, 송시열의 유배와 송준길의 관작 추탈을 주장하였다.²²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주류씨 함벽당은 17세기 전반 안동부의 서쪽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긴 이후에도 안동부의 동쪽에 위치한 전주류씨 수곡파의 혼인 관계망을 계승하였다. 아울러 안동부의 서쪽 및 안동부 속현 풍산현과 유곡현, 봉화현, 의성현 사촌, 용궁현, 순흥부에 세거하는 사족파의 혼인 관계망을 새롭게 형성하는 가운데 지역에서 위상을 강화해 나갔다.

2) 학문 관계망과 향촌 활동

조선 후기 사족의 위상은 가계의 위상과 연관이 있고, 가계의 위상은 혼인, 학맥, 과거 급제, 사환, 뛰어난 학자의 배출 등과 관련이 있다. 전주류씨 수곡파의 학문적 성향과 위상에 일찍이 영향을 끼친 인물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는 김성일이다. 전주류씨는 퇴계학의 기반 위에서 가학을 계승하였다.

가야곡촌 입향조 류학의 문인으로는 권성구權聖矩(1642~1708), 이유장 등이 언급된다. 류직이 권승경의 딸과 혼인했기 때문에, 권승경의 손자는 류직과 류학에게 나아가 학문을 익혔다. 혼인 관계망이 학문 관계망으로 연결된 경우이다. 권성구는 1678년(숙종 4) 문과에 급제하여 승문원 정자

22 『新安世稿』卷7, 附錄『行狀』. 『신안세고』는 남용달·남급·남천한의 문집을 한데 묶어 간행한 것이다. 이들은 풍산현에 있는 鳳巖書院에 제향되었는데, 영양남씨가 향촌에서 위상을 강화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병조 정랑 등을 지냈다. 안동부 한서동寒樹洞에서 태어났으나 만년에 외가와 가까운 학가산 아래로 거주지를 옮겼다.²³

이유장은 류학의 사위로, 와서 별제-공조 좌랑-안음 현감 등을 역임하였다. 그는 이취일李徽逸(1619~1672), 류원지柳元之(1598~1678), 이현일(1627~1704) 등과 교유하였다.²⁴ 이유장의 관계망은 류학의 손자인 류경시에게 이어졌다. 류경시는 이현일 비롯하여 17세기 후반 영남의 대표적인 학자에게 수학했으며,²⁵ 이를 통해 학문적으로 성숙하게 되는 기회를 얻었다.

한편 류경시가 교유한 인물로는 죽봉竹峯 김간金侃(1653~1735), 창설재蒼雪齋 권두경權斗經(1654~1725), 밀암密庵 이재李裁(1657~1730), 옥천玉川 조덕린趙德鄰(1658~1737) 등을 언급할 수 있다. 김간은 풍산김씨이다. 안동부 풍산현 오미동에 살았으며, 류성룡의 문인인 김경조金慶祖(1643~1705)의 증손이다. 전의이씨를 아내로 맞이하여, 이유장과 인척이 되었다. 그는 1710년(숙종 36) 문과에 급제하였다. 1701년(숙종 27) 영남에서 김장생의 문묘 배향을 반대하는 상소를 올릴 때 소수로 활동하여 광양으로 유배되었다. 황산 칠방-예조 좌랑 등을 역임하였다. 김간은 도산서원과 병산서원 원장을 역임하는 등 향촌 활동을 활발하게 하였다.²⁶ 풍산현 회곡에 건립된 낙연서원洛淵書院에는 이유장을 주향으로 하고 류경시와 김간이 배향되었다.

23 『鳩巢集』卷4, 「行狀」.

24 『孤山集』附錄 卷一, 卷二 「行狀」·「後識」·「輓詩」.

25 이현일의 문인록인 『금양금문록』에 류경시가 등재되어 있다(『葛庵全集(下)』(驪江出版社, 1986)).

26 1710년과 1715년에는 병산서원 원장을 역임했고, 1717년 도산서원 원장을 역임하였다(김명자, 「조선후기 屏山書院 院長 구성의 시기별 양상」, 『한국서원학회』 6(한국서원학회, 2018); 우인수, 「도산서원을 움직인 사람들」, 『조선서원을 움직인 사람들』(글항아리, 2013)).

권두경은 권벌의 5세손으로, 1710년(숙종 36)에 문과에 급제하였다. 형조 좌랑-영산 현감-홍문관 부수찬 등을 역임하였다.²⁷ 권두경이 류경시에게 보낸 편지를 『창설재집(蒼雪齋集)』에서 필사한 『창설유고(蒼雪遺稿)』가 함벽당에 전하는데, 류경시와 권두경의 교유를 확인할 수 있다. 권두경은 이현일의 문인으로, 이재와도 교유하였다. 1715년(숙종 41) 안동부사 이숙겸이 관아의 부속 건물인 도제당을 짓고 문회를 개최했는데, 그때 류경시·김간·권두경 등이 함께 하였다.²⁸

한편 『창설유고』 뒷부분에는 이재가 류경시에게 보낸 편지도 있다. 류경시가 이재와도 교유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재는 17세기 후반 퇴계학파를 주도했던 이현일의 아들이다. 그는 아버지를 따라 한양을 출입했으며, 남인의 실각과 함께 아버지의 유배지와 본가를 오가며 가학을 계승하였다. 이재 역시 영남의 학자들과 교유하는 가운데 학문적 위상을 높였다.

조덕린은 영양 출신으로, 1691년(숙종 17) 문과에 급제한 이후 설서-교리-홍문관 응교 등을 역임하였다. 1725년(영조 1) 당쟁의 폐해를 논하는 10여 조의 소를 올렸다가 종성에 유배되었다. 류경시와 조덕린은 4촌이기 때문에 조정에서 조덕린의 종성 유배 소식을 접하자마자, 류경시는 곧바로 형에게 알려주기도 하였다.²⁹

류경시가 교유했던 인물 가운데 조덕린의 경우에는 선대부터 세의가 이어졌고, 김간·권두경·이재 등은 류경시가 새롭게 교유한 인물이다. 이들은 퇴계학에 속했고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으로 나아갔거나 학문적으로

27 류학과 사돈인 권승경은 권벌의 방계 후손이고, 권두경은 직계 후손으로 봉화 유곡에 거주하였다.

28 『道齋堂酬唱帖』(필사본 1책,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29 을사년(1725) 10월 9일, 「류경시가 류경시에게 보내는 편지」(전주류씨 함벽당종가 간찰 0647).

위상이 높았으며 영남의 사족 사회를 주도했던 인물들이다. 류경시가 이들과 교류할 수 있었던 것은 혼인 관계망과 학문 관계망이 계승되기도 했고, 류경시 본인이 문과에 급제하고 중앙에서 관직을 역임하는 등 나름대로 위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전주류씨 함벽당 인물들이 향촌 활동 및 학문 활동을 하던 주요 배경이 되었던 공간은 함벽당과 오계서당이다. 전주류씨는 함벽당의 정자와 연못을 비롯하여 그 주변을 잘 가꾸어 손님들이 찾아오도록 했다. 이 공간은 관계망 형성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 오계서당은 함벽당 주변에 위치하며, 집안 자제들이 학문을 익히고 인격을 연마하며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건립한 것이다.³⁰

함벽당에서 훌륭한 학자와 급제자가 배출될 수 있는 지적 토대 가운데 하나는 함벽당 가정家藏 도서라고 할 수 있다. 함벽당 출신 인물들은 가장 도서를 통해 지적인 성장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함벽당의 조선 후기 가장 도서의 종류와 수량을 알 수 없지만, 현전하는 함벽당의 도서를 통해 추정할 수 있다. 함벽당은 세전하던 도서를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하였는데, 모두 341종 621책이다. 경부 33종 75책, 사부 22종 54책, 자부 6종 11책, 집부 280종 481책이다.³¹ 17세기 후반 사상계를 대표하는 학자이자 도서의 입수 및 확보에 관심이 지대했던 박세당朴世堂의 경우, 1688~1689년까지 작성한 장서가 196종 685책이라고 한다.³²

함벽당의 경우 가장 도서가 적지 않고 그 가운데 문집의 비중도 높은

30 상량기문은 柳正時(1660~1732)와 李明夏가 작성하였다.

31 누리미디어 편, 『전주류씨 함벽당종택』(한국국학진흥원, 2006), 212쪽.

32 손계영, 『朴世堂의 장서목록 『家藏書籍』 연구』, 『장서각』 26(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11).

편이다. 이는 영남 가장 도서의 특징이기도 하다. 영남에서는 스승 및 조상의 문자를 귀중하게 여겨 문인이나 후손이 문집을 간행하고, 이를 공유하는 문화가 강하였다. 문집의 공유를 통해 가문의 위상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집단 지성이 형성되기도 하였다.³³

함벽당의 학문적 관계망은 류경시 대에 이르러 가장 확장되었다. 류경시는 중앙의 관직을 역임한 만큼 자제를 비롯한 후손들이 학문에 힘쓰도록 정신적·물질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올해 겨울도 다 지나가는데 무슨 책을 읽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삼여三餘의 시간은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되네. 지난번에 독서에 필요한 기름을 간절하게 구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는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전후로 고향에 가는 인편이 모두 저버렸네. 상중의 조카에게 보낼 제물祭物도 더 보낼 방법이 없어서 지금 제수 짐바리 편에 비로소 몇 되를 부쳤는데, 늦은 것이 한스럽지만 정월과 2월 두 달은 짧은 밤이 아니니 낮을 이어서 독서할 수 있겠는가?³⁴

류경시는 집안의 자제들에게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고 당부하면서 독서에 필요한 기름을 마련하여 보내주었다.

33 물론, 함벽당에서도 문집을 간행하였다. 류학의 『治溪遺稿』, 류경시의 『함벽당문집』, 류진현의 『綠筠軒遺稿』, 류사현의 『葛天窩遺稿』, 류홍원의 『江浦逸稿』 등이다. 류영희는 『寓慕錄』·『農圃文稿』·『農圃日記』 등의 많은 저술을 남겼다. 전주류씨는 류영희 대에 와서 다시 학문적으로 발흥하게 된다. 그는 서파 류필영을 비롯하여 月隱 權熹淵, 榮山 鄭稷欽, 柯山 金澐模 등에게 수학했으며, 함벽당에서 제자를 양성하는 가운데 학행과 저술로 세상에 이름이 났다. 그가 교유했던 인물로는 益窩 金永奎, 懷齋 李萬杰, 鶴下 金重燮, 枕石 金象煥, 蒼溪 李學基 등이 있다. 그러나 20세기 초의 인물이어서 논외로 하였다(김주부, 『전주류씨 함벽당중가의 가계와 기탁자료의 가치』, 『국학자료목록집 전주류씨 함벽당중가』(한국국학진흥원, 2016), 217쪽). 현전하는 함벽당 소장 문집에는 선조의 문집을 비롯하여 20세기 이후에 간행된 것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4 정미년(1727) 12월 11일, 『류경시가 친척에게 보내는 편지』(전주류씨 함벽당 종가 간찰 0371).

류경시는 집안의 자제들뿐만 아니라 안동 지역과 인근 고을의 젊은이들에게도 학문적인 가르침을 있었다. 함벽당에는 류경시의 제자들이 계모임을 결성하고 만든 명부인 『동문계안(同門契案)』 1책이 전한다. 1724년(경종 4)에 처음으로 작성했으며, 성명, 자, 생년 간지, 본관, 거주지를 기록하였다. 본 계원과 추가로 기록한 인물은 추입으로 표기되어 있다.

본 계원은 류태현(柳泰鉉)·류진현(柳晉鉉)·권각(權恪)·김태렴(金泰濂)·정재전(鄭在田)·정재연(鄭在淵)·이숙(李淑) 순이고, 추입으로는 김두렴(金斗濂)·김증하(金澄河) 등이 있다. 이들이 류경시의 문하에 출입했던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전주류씨·안동권씨·의성김씨·청주정씨·가평이씨이다. 이숙이 순흥 출신이고 나머지는 안동 출신이다.

이후에는 문인의 후손들이 추입되어 『동문계안』에 등재된 인물은 179명이다. 안동 출신이 164명이고, 순흥부 출신 13명, 예천군 출신이 2명이다. 대부분 안동 출신이다. 성씨로는 전주류씨 39명, 의성김씨가 25명, 안동권씨 30명, 광산김씨 18명, 청주정씨 26명, 고성이씨 10명, 풍산김씨 4명, 경주이씨 4명 순이다. 그 밖에 진성이씨, 영양남씨, 청송심씨, 가평이씨, 고령신씨 등이 있다. 처음에 5개 성씨에서 18개 성씨가 등재되어 있다. 세대가 내려오면서 교유의 범위가 확대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조선시대 사족의 향촌 활동으로는 유향소, 향교, 서원 출입 등이 있다. 서원은 지역의 여론을 형성하고 지역의 현안을 논의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안동을 공간으로 나누어 볼 때, 안동의 동부권과 동남권은 학봉계의 무대이고, 서부권은 서애계의 무대이다. 서애계의 중심 무대는 서애 류성룡을 제향하는 병산서원이다. 전주류씨 함벽당은 전주류씨의 수곡과 박곡 등 전주류씨의 핵심 세거지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수곡파와 정치·사회·학문적 입장을 함께 하였다. 아울러 병산서원 원장을 역임하는 가운데 서애계와도 관계망을 형성하였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병산서원

『원임록院任錄』이다.

〈표 2〉 전주류씨 수곡파의 병산서원 원장 역임 현황³⁵

성명	역임 연도	비 고
柳敬時	1714년, 1731년	함백당 출신. 1721년·1736년 도산서원 원장 역임
柳晉鉉	1751년, 1761년	함백당 출신. 류경시의 아들
柳升鉉	1727년, 1738년	문과 급제. 1738년·1743년 도산서원 원장
柳師鉉	1770년	류경시 조카
柳範休	1810년	1797년 도산서원 원장 역임

18세기 병산서원은 풍산류씨를 비롯한 서애계를 중심으로 운영되었지만, 이현일의 문인 가운데 원장을 역임한 인물이 여러 명이였다. 이 시기에는 서애계와 학봉계의 갈등이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으며, 서로 교류하였다.

전주류씨로는 류경시·류진현·류승현³⁶·류사현·류범휴가 있다.³⁷ 서원 원장은 지역의 명망이 있는 인물이 역임한 경우가 다수이다. 따라서 이들은 향촌에서 위상이 높았던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류경시, 류경시의 아들 류진현과 조카 류사현은 함백당 출신이다. 류경시는 문과 급제와 더불어 중앙의 관직을 역임했던 인물이고, 류진현은 소과에 합격했으며, 아버지의 관계망을 이어받아 향촌 사족을 주도하는 위치에 있었다.

35 김명자, 앞의 논문, 2018.

36 류승현은 이인좌의 난 당시 3월 29일 안동 향교에서 김이상·권덕수·김민행·김몽령·배행건·김계탁·김친환·김달룡 등 7인으로부터 의병장으로 추대받기도 하였다(『慵窩集』卷三, 雜著『檄本府士林文』).

37 김명자, 앞의 논문, 2018, 17쪽.

전주류씨 함벽당은 병산서원 운영에 깊숙이 관여하였으며, 안동의 서부 지역을 무대로 인근의 사족들과 교류하는 가운데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하였다. 19세기 영남 남인은 정치적으로 매우 위축되었으며, 1805년(순조 5) 영남의 문묘 종사 운동이 실패로 돌아간 이후 서에게와 학봉계는 현실 대응 방식이 확연히 달랐다. 서에게는 중앙세력과의 연계를 통해 위상을 높이려고 했고, 학봉계는 '퇴계학통의 적전화'와 세력의 결집을 통해 위상을 강화하려고 하였다.³⁸

1810~1820년대 영남 남인의 최대 현안이었던 채제공蔡濟恭(1720~1799)의 신원 운동과 『변암집變巖集』을 간행하는 문제에 대해 서에게와 학봉계의 이해관계가 달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제공의 신원을 회복하고 문집 간행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은 류이좌·류상좌 등 서에게의 정치력과 더불어 안동부 서부지역 학봉계의 협조가 있었기 때문이다. 안동부 서부지역 학봉계는 권벌을 제항하는 삼계서원三溪書院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변암집』을 간행 당시 학봉계에서는 봉화의 김희주金熙周(1760~1830)가 앞장섰으며, 삼계서원에서 회합을 자주 가졌다.³⁹

3) 사환을 통한 위상 강화와 관계망의 확장

류경시는 문과 급제 이후 내직으로는 성균관 박사-성균관 전적-예조 좌랑-사헌부 장령 등을 역임하였고, 외직으로는 황해도 도사-평안도 도사-용강 현령-한산 군수-풍기 군수-양양 도호부사-순천 도호부사 등을 역임하였다.

38 권오영, 앞의 책, 298~342쪽.

39 『刊所日記(成冊 130·20·21)』(한국국학진흥원, 『국역간역시일기』, 2015).

류경시의 관직 생활은 함벽당 종가를 비롯하여 친지들의 경제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고, 위상 강화에도 기여하였다.

쌀보리 한 섬을 벽마羈馬에 실어 보냈으니, 이것은 집안의 소용을 위하여 보낸 것인데, 각 집이 모두 그러하니 이것에서 각 2두斗를 빌려 쓰고 추후에 각각 그 빛을 갚도록 하는 것이 옳다.

[추신] 백미 3두를 또한 보내니, 큰집(大宅)과 신양집(新陽宅)에 각 1두씩 나누고, 1두는 여종들을 위한 것이니 그곳으로 써서 보내라.⁴⁰

단오절 제수祭需 짐바리는 24일에 꾸려서 보내려고 했으나 뜻밖에 이런 일을 당하였고 내외 일가가 이 짐바리를 믿고 있었지만, 제사에 참석할 수 없을 것 같으니 섭섭하고 한탄스럽습니다.⁴¹

너는 형편상 움직이기 어렵고 두 아우는 기근에 빠져 있어 이곳에 와 함께 즐거움을 누릴 수 없는데, 혼자서 관음의 지공을 받아먹고 있으니, 어찌 잘 지낸다고 할 수 있겠느냐? 곡식에 대한 걱정을 말할 필요도 없겠거니와 아침 저녁으로 어렵고 궁핍하게 구제해야 할 지친至親은 거의 10여 집에 이르기
[...후략].⁴²

위의 편지는 류경시가 집안에 필요한 곡식을 구하여 보내거나 제수를 보내는 내용이다. 첫 번째 편지에는 류경시가 마련한 곡식을 큰집과 신양 집 및 여종들에게 적절하게 안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 번째 편지에서는 류경시가 10여 집의 경제를 책임지는 상황을 보여준다. 첫 번째와 세

40 을사년(1725) 7월 24일, 「류경시가 아들 류진현에게 보내는 편지」(전주류씨 함벽당종가 간찰 0526).

41 갑진년(1724) 윤4월 21일, 「류경시가 친형께 보내는 편지」(전주류씨 함벽당종가 간찰 0303).

42 무신년(1728), 「류경시가 류태현에게 보내는 편지」(전주류씨 함벽당종가 간찰 0468).

번째 편지를 보면, 류경시는 단순히 외직을 이용하여 가족과 친지들의 경제에 보탬을 주는 차원을 넘어, 집안의 경제를 관리·책임지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류경시가 관직을 역임하기 때문에 농업 경영뿐만 아니라 관에서 나오는 물품을 가정경영에 보탬 수 있었다.

류경시는 중앙에서 관직 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광좌李光佐(1674~1740), 김덕명金德明, 심단沈檀(1645~1730), 조태억趙泰億(1675~1728), 조석명趙錫命(1674~1753), 권이진權以鎭(1668~1734), 윤조尹肇 등과 교유하였다. 이 가운데 이광좌는 이항복의 후손으로 우의정-영의정 등을 역임하였다. 심단은 병조 참판-대사간-대사헌 등을 지냈다. 조태억은 병조판서-우의정-좌의정 등을 역임하였고, 조석명은 형조 판서-판돈녕 부사 등을 지냈다. 권이진은 호조 판서-평안도 관찰사 등을 역임하였다. 모두 당상관을 역임하였다. 류경시는 이들과의 교유를 통해 정치적 안목을 키우고 활동 폭을 넓혔을 것으로 보인다.⁴³

류경시는 관직 생활을 통해 교유한 사람들의 청탁을 들어주거나 이들의 일상에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

이어서 송구스럽지만 함종현咸從縣의 읍저邑底에 소질지小此之라는 여종이 있는데, 그의 장남 김노랑쇠金老郎金이란 자가 작년과 올해에 해당하는 연공年貢을 이유 없이 바치지 않으니 이미 몹시 가증스럽습니다. 게다가 올해 지독한 돌림병 때문에 부리던 종들이 거의 다 죽어버려 장남 김가란 놈을 잡아 와서 부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만 관아의 위엄이 없으면 오게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배자牌子를 써서 보내니, 순시하시다가 함종현에 도착하시거든 배자를 전해주고 두 해 치 연공으로 명주 2필과 함께 2말을 즉시 갖추어 들이게

43 1751년(영조 27) 후손들은 류경시가 이들과 주고받은 편지를 『先賢遺札』로 엮었다. 현재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보관 중이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짤막한 문서를 만들어 기한을 정하여 장남 김으로 하여금 지고 와서 납부하게 한 뒤에 답장을 받아서 내도록 각별히 엄척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⁴⁴

위의 편지는 1718년 9월 3일에 목천현睦天顯·목천임睦天任 형제가 평안도 도사로 근무하던 류경시에게 외노의 신공을 받아 달라고 부탁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다. 목천현의 조부 목내선은 남인의 영수였던 허목의 문인으로 기사환국 당시 서인을 축출하는 데 앞장섰다. 그런데 갑술환국 이후 조부와 아버지 목임일睦林—이 절도絶島에 안치되자 가세가 기울어져 어려움을 겪었다. 유배형에서 풀려난 목천현은 1707년(숙종 33) 휘릉 참봉에 임명되었다. 이후 관직이 이어졌으며, 류경시와도 교류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류경시가 외직에 있을 때, 그를 찾아오던 사람들을 접대하거나 지인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

손님과 찾는 사람이 줄을 잇습니마만 관아의 창고가 텅 비어 마음의 병이 크게 났으나,⁴⁵

척인戚人 박동룡朴東龍 군이 조만간에 죽관竹館에 도착할 것인데 정성스럽게 대접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⁴⁶

44 무술년(1718) 9월 3일, 「睦天顯·睦天任 형제가 柳敬時에게 보내는 편지」(전주류씨 함벽당종가 간찰 0035).

45 을사년(1725) 9월 17일, 「류경시가 柳正時에게 보내는 편지」(전주류씨 함벽당종가 간찰 0300).

46 병신년(1716) 12월 21일, 「敦이 미상인에게 보내는 편지」(전주류씨 함벽당종가 간찰 0606).

위의 편지는 작성연도로 볼 때 류경시가 풍기 군수와 양양 군수를 역임할 때 쓴 것이다. 류경시가 지방관을 역임할 때 접대 및 필요할 물건을 구해달라는 요청에 따른 고충을 알 수 있다. 류경시는 청탁을 받을 때 어려움이 따르기도 했지만, 성의껏 응대하였다. 이는 류경시 개인뿐만 아니라 함벽당을 위한 일이기도 하였다.

18세기 전주류씨 함벽당은 중앙의 관직 역임자를 배출하면서 인적 관계망이 중앙으로까지 확대되었지만, 이후 중앙 정계에 진출한 인물이 배출되지 않자 류경시 대에 형성된 관계망이 세대를 걸쳐 이어지지 않았다. 이는 영남 남인의 일반적인 경향이기도 하였다. 류경시 이후 함벽당은 퇴계학을 가학으로 계승하는 가운데 안동지역을 중심으로 영남을 공간적 범주로 하여 관계망을 지속하였다.

4. 맺음말

이상 조선후기 전주류씨 함벽당의 관계망과 그 특징을 살펴보았다. 관계망의 요소는 다양하지만 향촌사회에서 사회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는 혼인 관계망, 학문 관계망, 교유 관계망, 사환 관계망 등이다. 네 가지의 요소가 시기별로 비중과 성격이 달리하는 가운데 관계망은 형성·확대·축소의 과정을 거쳤다. 이를 요약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전주류씨는 16세기 안동부 동쪽에 위치한 천전의 의성김씨와 혼인한 이후 처가의 경제 기반이 있는 임하현 수곡에 정착하였다. 후손들은 박곡-원파-예안현 주진 등으로 거주지를 확대하였다. 안동부의 동쪽에서 예안에 걸쳐 있다. 전주류씨는 퇴계학과 내에서 학봉 김성일의 학통을 계승하였으며, 향촌 활동에서도 학봉계의 입장을 대변하였다. 혼인 및

사환과 학문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위상을 강화해 나갔다.

전주류씨 11세 류학이 17세기 전반에 처가의 경제적 기반이 있는 안동부 서쪽의 가야곡촌으로 이주함에 따라 전주류씨의 세거지가 서쪽으로 확대되었다. 이는 전주류씨의 관계망에 변화를 가져왔다. 첫째는 혼인 관계망의 변화이다. 이를테면 안동의 서부지역을 중심 무대로 하는 서애계와도 혼인이 이루어졌으며, 순흥부·봉화현·예천군 등 안동의 서남부지역에 인접한 고을의 성씨와 혼인 비율이 높아졌다. 둘째는 학문 및 교유 관계망의 변화이다. 조덕린·이재 등 임하현의 전주류씨 관계망을 계승하는 동시에 이유장·김간·권두경 등 안동의 서부지역 인사들과는 새로운 관계망을 형성하였다. 이는 후손들에게 계승되었는데, 류경시의 문인과 그 후손들의 명단인 『동문계안』에 등재된 179명 가운데 안동부 서쪽, 순흥부, 예천군 출신 인사들이 이를 반증한다.

향촌 활동을 살펴보면, 함벽당에서는 서애계를 대표하는 병산서원 원장도 배출되었다. 이들은 공간적으로는 서애계에 속하였지만 학문적으로는 학봉계에 속하였다. 이것이 전주류씨 함벽당 관계망의 특징이다. 19세기 향촌 사회가 서애계와 학봉계로 나뉘어 분열과 대립이 격화되었을 때 안동부 서쪽을 중심으로 한 학봉계가 이를 완화·조정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조선후기 가계의 위상은 과거와 사환을 통해서도 확장되는데, 함벽당의 경우 류경시가 문과 급제하고 중앙의 관직을 역임함에 따라 향촌에서 위상도 높아졌고 중앙의 인사들과도 교유하였다. 18세기 함벽당의 관계망은 중앙까지 확대되었지만, 이후 함벽당에서 중앙 관직을 역임하는 인물이 배출되지 않아 류경시가 형성한 관계망이 계승되지 않았다. 18세기 후반 이후 함벽당 관계망의 범위는 영남을 벗어나지 않았는데, 이는 영남 남인의 일반적인 경향이기도 하다.

조선후기 관계망 형성에는 혼인, 학문, 교유, 사환이 상호작용하였지만, 전주류씨 함벽당의 관계망에는 혼인이 중요한 요인이었다. 안동권씨와 혼인한 이후 안동의 서부권을 중심으로 새로운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었다. 사환을 통한 관계망은 후대에도 관직 진출자가 배출될 때 더욱 의미있는 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함벽당의 사례를 통해 확인하였다. 향후 더욱 다양한 사례연구로 관계망이 조선후기 지역사회의 구조와 변동에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관계망 연구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좀 더 분명하게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

• 2021. 02. 01 : 논문투고

• 2021. 02. 08 ~ 02. 23 : 심사

• 2021. 02. 26 :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

참고문헌

- 『葛庵全集(下)』(李玄逸)
『鳩巢集』(權聖矩)
『丹丘逸稿』(黃昌述)
『新安世稿』(南隆達 외)
『慵窩集』(柳升鉉)
『同門稷案』(필사본 1책,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道齋堂酬唱帖』(필사본 1책,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蒼雪遺稿』(필사본 1책,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豐山柳氏世譜』(1985)
『全州柳氏族譜』(9책, 1911)
『慶北地方古文書集成』(李樹健 編, 영남대학교 출판부, 1984)
『고문서집성 44-안동 전주류씨편(水谷宗宅)』(한국학중앙연구원 편, 1999)
『국역 영가지』(권기, 안동문화원, 2001)
『국역간역시일기』(한국국학진흥원, 2015)
『국학자료목록집 전주류씨 함벽당종택』(한국국학진흥원, 2016)
『안동 전주류씨 함벽당종가 간찰』(한국국학진흥원, 2020)
전주류씨 함벽당종가 간찰류(한국국학진흥원 제공)
- 권오영, 『조선후기 유림의 사상과 활동』, 돌베개, 2003.
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 『안동 무실 마을』, 예문서원, 2008.
우인수, 『朝鮮後期 嶺南 南人 研究』, 경인문화사, 2015.
정진영, 『조선시대향촌사회사』, 한길사, 1998.
고영진, 『양반관료 류희춘의 관계망』, 『사회적 네트워크와 공간』, 태학사, 2009.
김명자, 『조선후기 안동 하회의 풍산류씨 문중 연구』, 경북대 박사논문, 2009.
_____, 『조선후기 屏山書院 院長 구성의 시기별 양상』, 『한국서원학보』 6, 한국서원학회, 2018.

- 류영수, 『전주류씨 수곡과 가학의 형성과 전개』, 경북대학교 대학원, 2009.
- 우인수 외, 『조선서원을 움직인 사람들』, 글항아리, 2013.
- 설석규, 『惟一齋 金彦璣의 學風과 學脈』, 『韓國의 哲學』 30,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01.
- 손계영, 『朴世堂의 장서목록 『家藏書籍』 연구』, 『장서각』 26,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11.

Abstract

Hambyeokdang's Networks in the Ryu Family of Jeonju and Their Characteristics in the Latter Part of Joseon

Kim, Myung-ja

Part-time Lecturer, Kyungpook National Univ.

A network displays an aspect of social nature of certain individuals and groups. This paper presents an investigation into the network of Hambyeokdang in the Ryu family of Jeonju in Andong during the latter part of Joseon. “Toigye studies” and “families” held important political and social implications in Yeongnam during the latter part of Joseon. The Toigye School was divided into various groups. In the end, the Seoae line (Ryu Seong-ryong lie) whose main stage was in the western part of Andong and the Hakbong lie (Kim Seong-il line) whose main stage was in the eastern part played leading roles. The Ryu family of Jeonju led the Hakbong line.

In Andong, the Ryu family of Jeonju married the Kim family of Uiseong in the Cheonjeon village and settled down in the Sugok village of Imhahyeon in the eastern area of Andong-bu where the wife's family had a financial foundation. Since then, the Ryu family of Jeonju expanded their residence in the surrounding area. Ryu Hak at the age of 11 moved the family to the western part of Andong-bu close to his wife's family in the former half of the 17th century. His descendents called

“Hambyeokdang” formed new marriage and academic networks with distinguished families in the western part of Andong-bu and nearby towns including Sunheung-bu, Yecheon-kun, and Bonghwa-eup. Hambyeokdang lived in an area close to the residence of the Seoae line for generations and thus had a high level of social intercourse with figures of the Seoae line, but they still belonged to the Hakbong line. Against this backdrop, they played the roles of mitigating and coordinating intense division and confrontation between the Seoae and Hakbong line in the 19th century.

Key words

: Networks(關係網), Ryu Kyung-si(柳敬時), Ryu hak(柳擧),
Seoae line(西厓系), Hambyeokdang Family of Jeonju Ryu(全州柳
氏 涵碧堂) Hakbong line(鶴峯系)

